

종양간호학회지 논문 내용과 경향 분석 -창간호에서 2007년까지-

정복례¹, 이명선², 최은희³

¹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²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³대구산업정보대학 간호과 전임강사

Trends of Nursing Research in the Journal of Oncology Nursing

Chung, Bok Yae¹ · Yi, Myung Sun² · Choi, Eun Hee³

¹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³Full 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Daegu Polytechnic College, Daegu, Korea

Purpose: Purpose of study was to analyze the research articles in the Journal of Korean Oncology Nursing in order to provide an direction for the future research. **Methods:** This study analyzed 93 studi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Oncology Nursing, from its beginning year to the year 2007, according to the research objectives. The frame of evaluation included years and types of publication, the theoretical frameworks, research design, subject, data collection method, key-word analysis by MeSH. **Results:** 45.2% of studies was non-degree based studies. 95.7% of studies was not described theoretical framework in the articles. 71.0% was utilized a non-experimental design. 57% of subjects in researches was patients. 76.3% of studies were used the questionnaire for data collection. Concepts as human, nursing, and health were consistently appeared in research. But concepts of environment has been insufficiently conducted. **Conclusion:** Researches in the Journal of Korean Oncology Nursing has been changed in methodology and the topics of research for the last 7 yr. It progresses in both quantity and quality. But,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founded on theoretical background, various research design, variability of study subjects and topics as supported by scientifically and empirically.

Key Words: Medical oncology, Nursing research, Korea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종양환자의 발생빈도 증가와 함께 종양간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 발표에 따르면 암유병률은 인구 1,000명당 9.8명이며, 종양으로 인해 사망하는 환자의 수도 2006년 통계청 발표에서 인구 100,000명당 134.8명으로 조사 질병 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 7월 전문간호사에 종양간호사가 추가된 것은 종양 환자 간호에 대한 새로운 입지를 보여준 것으로, 이는 종양간호

의 중요성이 학문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확고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종양간호사의 역할 및 종양간호에 대한 중요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되며 이에 부합하여 종양간호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되리라 생각한다.

종양간호에 대한 연구는 주로 호르몬 요법, 보완요법 및 피로, 통증, 수면 및 활동 등에 대하여 이루어져 왔으며^{5,8,11,16,17}, 종양간호사에 대한 연구는 전문간호사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연구^{2,7,10}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종양 관련 연구에 대한 분석은 미비하여 연구 결과를 분석, 합성하고 평가하거나 앞으로의 종양관련 연구의 방향제시 및 연구에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 결과를 임상실무에 적용하기는 부족하다하겠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종양간호의 지식체를 규명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노력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Carmen⁶은 2000년에서 2006년까지 Tomson scientific's web에 있는 문헌을 근거로 연구의 인용 정도를 추정함으로써 유럽에서 발간되는

주요어 : 종양간호 논문 분석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Choi, Eun Hee

Department of Nursing, Daegu Polytechnic College, San 395 Manchon 3-dong, Suseong-gu, Daegu 706-711, Korea
Tel: 82-53-749-7248 Fax: 82-53-749-7460
E-mail: choieunhi24@hanmail.net

투고일 : 2007년 12월 30일 심사완료일 : 2008년 1월 20일

중앙간호 관련 연구가 미국보다 출판 건수나 인용 정도에서 우위에 있음을 밝혔으며, Ugolini²¹⁾는 1996년에서 2000년까지의 유럽에서 출판된 논문을 분석하여 전체 연구 논문 중 중앙간호와 관련된 논문이 많아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중앙전문간호사 관련 연구의 분석으로는 McGuire¹⁴⁾가 미국에서의 중앙간호 연구를 고찰하면서 건강진달체계에 중앙간호 연구 접목과 중앙간호사의 미래 역할과 중앙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Choi 등⁴⁾이 국내의 압 관련 논문을 분석한 것과 Sohn 등¹⁹⁾이 소화기계 암 환자의 국내 간호연구를 분석한 것이 있다. 그러나 Choi 등⁴⁾의 연구는 10년 전의 것이라 현재 상황을 대변하기 어려우며 Sohn¹⁹⁾의 연구는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소화기계 암환자에 국한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중앙간호 논문분석으로는 매우 미진하다.

이뿐만 아니라 중앙간호 연구를 촉진시키고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한 의도로 2001년 중앙간호학회지가 창간되어 2007년까지 게재된 논문이 총 93개에 이르나 이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앙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여 중앙간호의 연구동향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중앙간호 연구의 방향 모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설계

본 연구는 중앙간호학회지가 창간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게재된 총 93개의 논문을 분석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분석 도구

본 연구는 간호학 논문을 분석한 기존의 분석 연구^{3,13,20)}를 근거로 분석 도구를 개발하여 그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도구에 포함된 내용은 연구의 연도 및 종류, 연구 유형, 이론적

Table 1. Number of research by year and type

Year (volume)	Thesis for degree N (%)	Financially supported article N (%)	General article N (%)	Total N (%)
2001 (2)	5 (38.5)	5 (38.5)	3 (23.0)	13 (100.0)
2002 (1)	4 (50.0)	2 (25.0)	2 (25.0)	8 (100.0)
2003 (2)	5 (38.5)	5 (38.5)	3 (23.0)	13 (100.0)
2004 (2)	1 (7.1)	7 (50.0)	6 (42.9)	14 (100.0)
2005 (2)	4 (28.6)	4 (28.6)	6 (42.8)	14 (100.0)
2006 (2)	0 (0.0)	3 (18.8)	13 (81.3)	16 (100.0)
2007 (2)	1 (6.7)	5 (33.3)	9 (60.0)	15 (100.0)
Total	20 (21.5)	31 (33.3)	42 (45.2)	93 (100.0)

기틀 유무, 연구 설계, 표본추출 방법, 연구 대상, 연구 도구, 자료 수집 방법, 간호 영역별 주요 개념을 분석하였으며, MeSH 관련 개념도 분석하였다.

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의 빈도,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연도별, 종류별 논문 분포

창간호부터 2007년까지 총 93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논문의 종류별로 2003년까지 학위논문, 재정지원을 받는 논문, 일반논문의 순으로 게재된 논문이 많았으나 이후 학위논문의 비율이 감소하고 일반 논문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게재된 논문 전체를 확인했을 때에는 일반 논문이 45.2%로 가장 많았으며 재정지원을 받은 논문 33.3%, 학위논문 21.5%의 순으로 많았다(Table 1).

2. 연구 유형 및 이론적 기틀 유무

게재된 논문 중 실험연구 23.7%, 비실험 연구 76.3%이었으며, 이론적 기틀이 있는 논문은 4.3%, 이론적 기틀이 없는 논문은 95.7%이었다(Table 2).

3. 연구 설계

연구 설계는 비실험 연구가 71.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사실험 연구 19.4%이었으며, Triangulation 연구가 1.1%로 가장 적었고, 질적 연구가 4.3%로 그 다음 순이었다(Table 3).

4. 연구 대상

게재된 논문의 연구 대상은 환자가 57.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의료인 16.1%, 일반인 10.8%, 기타 8.6%, 환자 가족 7.5%의 순이었다. 또한 환자, 의료인, 일반인, 기타 대상자는 연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으나 돌봄제공자인 환자 가족에 대

Table 2. Presence of theoretical framework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researches

Category	Item	Experimental studies	Non-experimental studies	Total N (%)
		N (%)	N (%)	
Theoretical framework	Described	0 (0.0)	4 (4.3)	4 (4.3)
	Not described	22 (23.7)	67 (72.0)	89 (95.7)
	Total	22 (23.7)	71 (76.3)	93 (100)

Table 3. Type of research design by year

Year (volume)	Quantitative studies			Qualitative design N (%)	Triangulation N (%)
	Quasi-experimental design N (%)	Pre-experimental design N (%)	Non-experimental design N (%)		
2001 (2)	2 (15.4)	0 (0.0)	11 (84.6)	0 (0.0)	0 (0.0)
2002 (1)	3 (37.5)	2 (25.0)	3 (37.5)	0 (0.0)	0 (0.0)
2003 (2)	4 (30.8)	0 (0.0)	9 (69.2)	0 (0.0)	0 (0.0)
2004 (2)	2 (14.3)	0 (0.0)	10 (71.4)	1 (7.1)	1 (7.1)
2005 (2)	1 (7.1)	0 (0.0)	11 (78.6)	2 (14.3)	0 (0.0)
2006 (2)	3 (18.8)	2 (12.5)	10 (62.5)	1 (6.3)	0 (0.0)
2007 (2)	3 (20.0)	0 (0.0)	12 (80.0)	0 (0.0)	0 (0.0)
Total	18 (19.4)	4 (4.3)	66 (71.0)	4 (4.3)	1 (1.1)

Table 5. Data collection method by year

Year (volume)	Physiological measurement N (%)	Questionnaire N (%)	Interview N (%)	DACUM N (%)	Others N (%)
2001 (2)	2 (15.4)	11 (84.6)	0 (0.0)	0 (0.0)	0 (0.0)
2002 (1)	1 (12.5)	7 (87.5)	0 (0.0)	0 (0.0)	0 (0.0)
2003 (2)	0 (0.0)	12 (92.3)	0 (0.0)	0 (0.0)	1 (7.7)
2004 (2)	0 (0.0)	10 (71.4)	1 (7.1)	0 (0.0)	3 (21.4)
2005 (2)	1 (7.1)	8 (57.1)	3 (21.4)	0 (0.0)	2 (14.3)
2006 (2)	3 (18.8)	9 (56.3)	1 (6.3)	1 (6.3)	2 (12.5)
2007 (2)	0 (0.0)	14 (93.3)	0 (0.0)	0 (0.0)	1 (6.7)
Total	7 (7.5)	71 (76.3)	5 (5.4)	0 (0.0)	9 (9.7)

한 연구는 2004년 이전에는 2편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 이후에는 4편으로 증가하였다(Table 4).

5.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 방법은 설문지 76.3%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9.7%, 생리적 측정 7.5%, 면담 5.4%, 우편으로 설문지를 통한 데이터 1.1% 순이었다. 생리적 측정은 창간호부터 사용되었으나 면담, 데이터는 2006년 이후부터 사용되었다(Table 5).

6. 주요 개념 분석

제재된 93편의 논문에서 나타난 주요 개념을 간호의 메타패러다임인 인간, 건강, 간호, 환경의 틀에서 분석하였다. 네 가지 영역 중 건강에 대한 개념이 52.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간호 23.7%, 인간 13.2%, 환경 2.8%의 순이었으며 네 영역에 포함하기 어려운 기타 개념은 7.7%이었다. 네 영역에 나타난 개념을 MeSH에 등재 확인 결과 51.7%만이 MeSH에서 제시한 개념을 사용하였다(Table 6).

간호의 메타패러다임 중 '인간'에 포함된 개념은 총 38개로

Table 4. Number of research subject by year

Year (volume)	Patient N (%)	Healthy people N (%)	Family member of patient N (%)	Medical care person N (%)	Others N (%)
2001 (2)	9 (69.2)	1 (7.7)	0 (0.0)	3 (23.1)	0 (0.0)
2002 (1)	5 (62.5)	2 (25.0)	1 (12.5)	0 (0.0)	0 (0.0)
2003 (2)	6 (46.1)	1 (7.7)	1 (7.7)	4 (30.8)	1 (7.7)
2004 (2)	8 (57.2)	1 (7.1)	0 (0.0)	4 (28.6)	1 (7.1)
2005 (2)	10 (71.5)	0 (0.0)	1 (7.1)	0 (0.0)	3 (21.4)
2006 (2)	8 (50.0)	0 (0.0)	3 (18.8)	2 (12.4)	3 (18.8)
2007 (2)	7 (46.7)	5 (33.3)	1 (6.7)	2 (13.3)	0 (0.0)
Total	53 (57.0)	10 (10.8)	7 (7.5)	15 (16.1)	8 (8.6)

13.2%를 차지하였다. 간호 대상자인 개인, 가족, 지역사회 중 주로 개인에 중점을 두고 있는 논문이 많았으며 환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5.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기타 4.8%, 간호사 2.8%의 순이었다.

간호의 메타패러다임 중 '건강'에 포함된 개념은 총 151개로 52.7%를 차지하였다. 건강을 신체, 정신, 사회적인 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정신적 영역이 71개 24.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신체적 영역 50개 17.4%, 사회적 영역은 30개 10.5% 순이었다.

간호의 메타패러다임 중 '환경'에 포함된 개념은 총 8개로 2.8%이었으며 이 중 가족이 2개로 0.7%, 사회는 6개로 2.1%이었다.

간호의 메타패러다임 중 '간호영역'에 포함된 개념은 총 68개의 23.7%를 나타내었다. 이중 수행은 57개의 19.9%, 교육은 9개의 3.1%, 상담은 2개의 0.7%의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중재 중 가장 많이 사용한 개념은 8개로 향암요법이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중앙간호학회지 창간호부터 시작하여 2007년까지 중앙간호학 분야에서의 연구를 되돌아보고 중앙간호학의 현주소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 대상은 중앙간호학회지 창간 이후 지난 7년간의 논문 총 93편이었으며 객관적인 틀에 의해 분석하였기 때문에 논문의 질 수준을 평가 분석을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제재된 논문의 유형은 학위논문이 2001년에는 38.5%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6.7%로 그 비율이 월등히 감소하였으며, 이는 Choi 등³⁾의 대한간호학회지 논문 분석과 같은 결과이다. 초기에 학위논문이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간호학에서 학위논문이 논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

Table 6. Classification of key concept by nursing domain

(N=430)

Domain N (%)	Major concept N (%)	MeSH matching N (%)	Frequency of key concept (N)
Human-being 38 (13.2)	Patient 16 (5.6)	0 (0.0)	Cancer patient (4), Female cancer patient (2), Terminal cancer patient (2), Allogenic bone marrow transplantation donor (1), Head and neck cancer patient (1), Home cancer patient (1), Mastectomy patient (1), Oncology patient (1), Patient (2), Patients with hemato-malignancy (1), Terminal patient with cancer (1)
	Nurse 8 (2.8)	0 (0.0)	Nurse (2), Advanced oncology certified nurses (1), Hospice nurse specialist (1), Oncology APN (1), Oncology nurse practitioner (1), Oncology specialist (1), Oncology nurse (1)
	Others 14 (4.8)	7 (2.4)	Family (2), Survivor (2), Volunteer (2), Family care-giver (1), Middle aged man (1), Mothers of children with cancer (1), Primary care giver (1), Self help group (1), Spouse (1), Woman (1), Woman with mastectomy (1)
Health 151 (52.6)	Physical 50 (17.4)	36 (12.5)	Breast cancer (11), Cancer (9), Fatigue (7), Breast neoplasm (2), Health promotion behavior (2), Lung cancer (2), Symptom (2), Acute side effects (1), Age (1), Cancer in digestive system (1), Functional status (1), Gastric cancer (1), Gastric carcinoma (1), Health behavior (1), Health condition (1), Hematologic malignancy (1), Heredity disease (1), Immune response (1), Kamofsky performance status (1), Leukemia (1), Nausea (1), Nausea & vomiting (1), Nutritional status (1), Physical functioning (1), Shoulder range of motion (1), Sleep (1), Stomach neoplasm (1), Thyroid neoplasm (1), Vomiting (1)
	Psychological 71 (24.7)	44 (15.3)	Anxiety (7), Depression (6), Stress (4), Educational need (3), Hope (3), Spiritual health (3), Attitude (2), Burnout (2), Burden (2), Information need (2), Self-esteem (2), Pain (2), Uncertainty (2), Anger in antineoplastic agents (1), Body image (1), Cancer patients' needs (1), Cognition (1), Consciousness (1), Counseling need (1), Efficacy expectation promotion program (1), Emotional response (1), Life satisfaction (1), Mood (1), Nursing care satisfaction (1), Nursing need (1), Perception (1), Satisfaction (1), Self-efficacy (1), Self transcendence (1), Sleep quality (1), Spirituality (1), Spouse bereavement (1), Suffering (1), Symptom distress (1), The meaning of suffering (1), Type C personality (1)
	Social 30 (10.5)	15 (5.2)	Adaptation (2), Coping (2), Demand of illness (2), Breast self-examination compliance (1), Compliance to medical regimen (1), Coping mechanism (1), Manpower projection (1), Meaning of life (1), Pain knowledge (1), Performance degree (1), Quality of life (11), Role (1), Role enactment (1), Sexual behavior (1), Support (1), Treatment seeking behavior (1), Voluntary activity (1), Volunteering (1)
Environment 8 (2.8)	Family 2 (0.7)	0 (0.0)	Family function (1), Family support (1)
	Society 6 (2.1)	4 (1.4)	Korea (2), Causal attribution (1), High risk (1), Internet (1), Patient preference (1)
Nursing 68 (23.7)	Education 9 (3.1)	0 (0.0)	Education (3), Breast self-examination education program (1), Guidelines of safe handling of cytotoxic drug (1), Individual education (1), Pain management education (1), Psycho education (1), Web-based education program (1)
	Consult 2 (0.7)	2 (0.7)	Counseling (1), Genetic counseling (1)
	Intervention 57 (19.9)	32 (11.1)	Chemotherapy (8), Hospice (4), Mastectomy (3), Radiotherapy (3), Breast self-examination (2), Foot massage (2),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 (1), Perioperational behavior (1), Advanced practice nursing (1), Aerobic dance (1), Allogenic bone marrow transplantation (1), Alternative therapies (1), Care (1), Antineoplastic combined chemotherapy protocols (1), antineoplastic drug (1), Autogenous transplantation (1), Breavement care (1), Chemical therapy (1), Clinical pathway (1), Clinical trial (1),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ies (1), Cryotherapy (1), Educational need assessment (1), Foot reflexology (1),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1), Imagery therapy (1), Mass screening (1), Mouthwashes (1), Music therapy (1), Opioid peptide (1), Pain management (1), Self help program (1), Video program (1), Whole body irradiation (1)
The others 22 (7.7)	Research 9 (3.2)	3 (1.0)	Analysis of nursing research (1), Cluster analysis (1), Data mining (1), Ethnography (1), Instrument (1), Integrative review (1), Korean version (1), Oncology nursing research (1), Take analysis (1)
	Management 13 (4.5)	6 (2.1)	Decision making (2), Practice (2), Barrier factor (1), Early detection (1), Euthanasia (1), Forgiveness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1), Genetic screening (1), Necessary degree (1), Program evaluation (1), Safe management (1), Sleep disturbance (1)
Total	147 (51.7)		

*Dark words are matched with MeSH.

라 연구자 및 임상연구자들이 활발히 연구 활동을 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종양간호연구의 밝은 미래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비실험 설계가 전체 논문 중 66편(71.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앞으로 다양한 설계의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Suh 등³⁰⁾과 Choi 등³³⁾의 연구에서도 비실험 설계가 각각 73.6%, 66%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하다 하겠다. 그러나 질적 논문의 비율이 대한간호학회지(2000) 15.4%, 성인간호학회지(2001) 10.3%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4.3%로 낮게 나타나 우리나라에 적합한 종양간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임상실무 현장을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 질적 연구의 비중이 더 높아져야 함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더구나 또 다른 설계 유형인 Triangulation 연구도 1편(1.1%)에 불과하여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이론적 기틀을 적용하지 않은 논문은 89편(95.7%)으로 대부분의 연구가 이론적 기틀을 제시하지 않았음을 나타내어 종양간호 이론 개발을 위한 연구의 질이 앞으로 더 높아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논문의 연구 대상자 특성은 환자가 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의료인(16.1%), 일반인(10.8%), 기타(8.6%), 가족(7.5%)의 순으로 Suh 등²⁰⁾의 성인간호학회지 논문 분석 결과 환자(46.3%), 일반인(24.8%), 의료인(18.9%), 가족(4.1%)의 순으로 보고한 것과 유사하나 일반인과 의료인의 순위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암환자 특성상 대부분의 연구가 임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 병원 이외의 다른 영역에 포함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인간호학회지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가족 관련 연구가 가장 적어 환자뿐만 아니라 이들을 돌보는 가족에 대한 연구도 많이 요구된다 하겠다.

자료 수집 방법은 주로 설문지를 이용한 방법이 76.3%로 가장 많아 성인간호학회지 논문을 분석한 Suh 등²⁰⁾의 연구와 기본간호학회지를 분석한 Jeong 등¹²⁾의 연구에서 각각 53.7%, 51.6%인 것과는 차이가 있었으나 설문지가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생리적 측정은 7편(7.5%)으로 Suh 등²⁰⁾의 8.2%와는 유사하였으나 Jeong 등¹²⁾의 22.9%보다는 적어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서 생리적 측정법을 사용한 연구가 증가되어야 된다.

간호의 메타페러다임으로 간주되는 인간, 건강, 환경 간호의 4가지 영역을 기준으로 주요 개념을 분석한 결과, 건강 관련 개념이 52.7%로 가장 많았고 간호 관련 개념은 23.7%, 인간 관련 개념은 13.2%, 환경 관련 개념은 2.8%로 나타나 Suh 등²⁰⁾의 연

구와 동일하게 환경 관련 연구가 크게 부족함이 단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간호 관련 개념을 살펴보면 Bernardine¹⁾는 암 환자에서 주요한 것은 운동이며 특히 초기 암 진단 시 운동은 신체적 기능, 삶의 질,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요 개념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Bernardine¹⁾의 연구에서 초기 암 환자가 아닌 후기 또는 말기 암 환자에서는 운동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과 본 연구에서 호스피스와 마사지 및 음악요법을 포함한 대체요법에 관련 개념이 많이 나타난 것을 감안할 때 본 연구 대상자의 질병 정도를 유추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개념은 '유방암'과 '삶의 질'로 우리나라 종양간호 연구에서는 종양환자의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이는 Rogers¹⁸⁾가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두부과 경부암 환자의 문헌을 분석한 결과 삶의 질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Brown²⁾의 연구와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Efstathiou⁹⁾의 연구에서 종양간호에서 의사소통이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 것이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McIlpatrick¹⁵⁾가 조사한 결과 의사소통이나 정보제공과 같은 심리사회적 이슈가 중요한 것으로 주장한 연구와는 차이가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의 종양환자 간호에 있어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위논문의 비율이 감소하고 일반 논문의 비율이 증가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종양 관련 연구를 하는 연구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나타낸 것으로 고무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종양 관련 연구의 대부분이 비실험연구로 이루어졌고, 연구의 도구는 주로 설문지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환자인 것으로 나타난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양간호 연구의 폭이 넓지 않음을 나타낸 것으로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간호의 메타페러다임인 인간, 건강, 간호, 환경 측면에서 분석하였을 때 주로 건강관련 연구가 많았고, 인간, 간호, 환경에 대한 연구는 적은 것은 문제라 하겠다. 특히 논문의 주요 개념 제시에 있어 MeSH의 개념을 사용한 논문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앞으로 학회지 발간에서 이점에 대해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종양관련 논문이 호스피스 학회지와 같이 유사 학회지에도 많이 게재되어 있으며 7년 동안의 발표한 논문의 수가 많지 않은 것은 본 학회지가 학술진흥재단 등재지가 아닌 것이 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종양간호학회지가 종양

간호 연구를 촉진시키고 전문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학술진흥재단 등재지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이를 위해 질적이고 양적인 향상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종양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창간호부터 2007년까지 7년간 게재된 논문 93편의 내용을 분석한 것이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종양간호학 연구의 동향을 조망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 전체 논문 93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유형은 학위논문이 21.5%, 재정지원을 받은 논문이 33.3%, 일반논문이 45.2%이었다. 또한 2004년 이후의 간호연구는 2003년까지에 비해 학위논문보다는 일반논문의 게재비율이 증가하였다.

둘째, 이론적 기틀의 유무에 따라서는 95.7%가 이론적 기틀이 없었으며, 71.0%가 비실험 설계이었다. 또한 연구대상자는 환자가 57.0%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에 대한 연구는 4.1%로 가장 적었으며 자료수집방법은 설문지법이 76.3%로 가장 많았다.

셋째, 간호의 주요 개념인 인간, 건강, 간호, 환경에 대한 연구 중 건강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그 중 유방암에 대한 개념이 가장 많았다. 환경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으며 MeSH에 있는 단어를 주요 개념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사용한 경우가 57.8%에 불과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론적 기틀을 제시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연구 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 대상자를 환자 이외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간, 건강, 간호, 환경의 네 가지 간호 메타패러다임을 적용한 연구가 고르게 분포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MeH에 있는 주요 개념을 사용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Finto BM, Floyd A. Methodologic issues in exercise intervention research in oncology. *Semin Oncol Nurs* 2007;23:297-304.
2. Browne N, Robinson L, Richardson A. A Delphi study on the research priorities of European oncology nurses. *Eur J Oncol Nurs* 2002;6:133-44.
3. Choi KS, Song MS, Hwang AR, Kim KH, Chung MS, Shin SR, et al. The trends of nursing research in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ursing. *J Korean Acad Nurs* 2000;30:1207-18.
4. Choi SH, Nam YH, Ryu EJ, Baek MW, Suh DH, Suh SR, et al. An integrative review of Oncology Nursing Research: 1980-1998. *J Korean Acad Nurs* 1998;28:786-800.
5. Chung BY, Choi EH. Effect of foot massage on anxiety and pain in mastectomy patients. *J Korean Oncol Nurs* 2007;7:47-55.
6. Carmen LI, Felis DM, Henk MA. The actual citation impact of european oncological research. *Eur J Cancer* 2008;44:228-36.
7. Coulson S, Phelan L. Clinical research in paediatric oncology and the role of the research nurse in the UK. *Eur J Oncol Nurs* 2000;4:154-61.
8. Dean A. Hormone treatment for breast cancer. *Cancer Nurs Pract* 2007;6:35-9.
9. Efstathiou N, Ameen J, Coll AM. Healthcare providers' priorities for cancer care: a Delphi study in Greece. *Eur J Oncol Nurs* 2007;11:141-50.
10. Hollis R. The role of the specialist nurse in paediatric oncology in the United Kingdom. *Eur J Cancer* 2005;41:1758-64.
11. Jacob E, Hesselgrave J, Sambuco G, Hockenberry M. Variations in pain, sleep, and activity during hospitalization in children with cancer. *J Pediatr Oncol Nurs* 2007;24:208-19.
12. Jeong IS, Kang KS, Kim KH, Kim KS, Kim WO, Byun YS, et al. The research trends in Fundamental Nursing-based on the analysis of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J Korean Acad Fundam Nurs* 2001;8:132-46.
13. Lee KJ. Analysis of nursing research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Nursing. *J Korean Acad Psychiatr Nurs* 2001;10:451-62.
14. McGuire DB, Ropka ME. Research and oncology nursing practice. *Semin Oncol Nurs* 2000;16:35-46.
15. Mcilpatrick SJ, Keeney S. Identifying cancer nursing research priorities using the Delphi technique. *J Adv Nurs* 2003;42:629-36.
16. Olson K. A new way of thinking about fatigue: a reconceptualization. *Oncol Nurs Forum* 2007;34:93-9.
17. Richardson J, Pilkington K. Complementary therapies in life-limiting conditions. *Nurs Times* 2007;103:32-3.
18. Rogers SN, Ahad SA, Murphy AP. A structured review and theme analysis of papers published on 'quality of life' in head and neck cancer: 2000-2005. *Oral Oncol* 2007;43:843-68.
19. Sohn SK, Han YI, Kim KH, Youn SJ. Analysis of cancer nursing research in digestive system in Korea. *J Korean Oncol Nurs* 2005;5:52-62.
20. Suh MJ, Kim SS, Song MS, Yee MS, Oh EG, Shin KR, et al. An analysis on the contents and the trend of nursing research published i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989-2000). *J Korean Acad Adult Nurs* 2001;13:571-80.
21. Ugolini D, Mela GS. Oncological research overview in the uropean union. A 5-year survey. *Eur J Cancer* 2003;39:1888-94.